



## 소방안전봉사상을 타기까지



白明海  
충남대전소방서, 소방교

본 협회에서 실시한  
제11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84. 11. 5)  
에서 안전대상을 받은  
한 소방관의 생활 체험  
수기를 실는다.  
<편집자주>

내가 대전소방서로 발령을 받은 것이 지난 1976년 9월1일, 그동안 선착대 관창수 특공대로 근무해 오면서 크고 작은 화재를 수없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화재는 지난 70년 5월 홍두동 충남광유회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기억된다.

유조열차 배관이 파열되어 흘러나온 휘발유가 약 2.5km나 번져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출동하고 보니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은 맹렬하게 치솟았다. 유조탱크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부터 먼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들어 급히 서둘렀으나 도중에 다리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다. 벌써 불은 다리에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다리밑에는 공기가 잘 유통되지 않으므로 불이 여기서는 멈출것이라 자신하게 되었다. 만약 이곳에서 불이 잡지못하면 대전 시내 전체가 불바다로 변하고 말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내 한몸이 희생되는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불길을 잡아 막겠다는 신념으로 진화작업을 벌이다보니 눈섭과 머리칼이 타는줄도 몰랐었다. 드디어 불길은 잡혔다.

소방관 생활 8개월이 못된 초년생이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소방관의 참된 뜻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나는 어떠한 화재라 할지라도 이를 두려워 하지않고 불과 싸울것이라는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다져나갔다.

그러던중 71년 5월 30일 오전 10시경 선화동 동신주유소로 부터 화재신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출동하고 본즉 화재는 아니었다.

주유소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물청소를 하던 인부1명이 우물속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어버리자 주인 아들이 뛰어들었으며 인부를 구출하려던 주인아들 역시 함께 질식해버린 것이었다.

나는 허리에다 밧줄을 맨 후 사다리를 타고 우물속으로 들어갔다.

인부1명은 이미 죽어있었으며 주인아들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급박한 상태라 우선 주인아들 손목에다 밧줄을 묶었다. 그리고 나서는 나 자신도 의식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다.

나는 동료직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주인집 아들은 생명을 건졌다. 좀더 일찍 신고가 있었다라면 인부의 생명을 구할수 있었을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다.

**이**처럼 신속한 신고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해낼수 있다는 자신과 준비 또한 대형사고를 막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아내가 다리가 아프다면서 앓기 시작한 것이다.

· · · 외과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병명은 골수암으로 판정되었다. 청천벽력이었다. 입원을 시킨 후 더욱 확실한 병명을 알기 위하여 82년 4월 서울종합병원과 충대부속병원에 다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약2주만에 나온 결과로는 급성이 아니고 종양이라는 것이었다.

퇴원수속을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그날밤 아내의 한쪽 다리뼈는 부러지고 말았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었다.

수술을 받게 한 후 입원을 시켰으나 어린 3남매와 치료비가 문제였다. 전세 1백 20만원의 단칸방 살림이었던 나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걱정거리였다.

**이**원한지 4개월이 지나자 담당의사는 부목을 떼내도록 했다. 그리고는 목욕탕에 다니면서 다리운동을 할것을 권했다.

그러나 약4개월 동안을 거의 매일같이 목욕탕에 다니면서 다리운동을 해보았으나 굳어진 다리가 쉽게 펴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물리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심을 했다.

××병원 앞에도 삭월세 방을 얻고 약2년동안 물리치료를 받게 했다.

간혹 밤이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때는 집에서 물수건으로 환부를 문지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너무나 힘에겨워 죽고싶은 생각을 하루에도 몇번씩 되풀이 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여기서 좌절한다면 죄없는 자식들과 병고에 시달리는 아내는 누가 돌보아줄까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딜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아내는 치료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 하여 병원으로 부터 쫓겨나야만 했다.

궁리끝에 다시 서대전4가 ××정형외과로 옮기기로 했다.

통원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병원을 옮겼으나 막상 옮겨놓고 보니 통원하기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나는 택시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면서 아내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결과 경과가 좋아 올 겨울방학이면 아내 다리에 박혀있는 금속제거 수술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로나날을 보내다 보니 직장에도 소홀한 점이 없지않아 서장님을 비롯한 여러간부와 동료직원에게 미안함을 금할길이 없다.

나는 지난날의 소홀했던 점을 보답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화재라는 화재에는 모조리 출동하여 화염을 무릎쓰고 진화작업을 떠나갔다.

이처럼 열심히 화재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여러번 지하실 화재 또는 밀폐된 창고화재등을 통해 연기에 질식되어 죽음직전에 놓이거나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하실 화재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그결과 개발된 것이 바로 지하실 관창이었다. 몇번이나 부수고 다시 제작하기도 했다.

**ㄷ**디어 약30평 정도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진화가 가능한 지하실 관창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각지방 소방서에서는 제작된 안을 보내주도록 요청해 왔다.

지금도 나는 대전소방서에서 내가 개발한 지하실관창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대전소방서의 옹화단결은 대단하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소방서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나 또한 이 속에서 생애가 다 할때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